

## 신성장동력 발굴에 힘쓰는 기업들



22일(현지시간) 열린 삼성전자의 영국 케임브리지 AI 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LG전자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개최한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LG전자 미국법인 데이빗 반더월 마케팅총괄이 서빙로봇, 포터 부터)이 7일과 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2018 SK 글로벌 포럼'에 참석했다.

/삼성전자 로봇, 쇼핑카트로봇 등 신규 콘셉트의 로봇 3종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SK



## AI 허브 구축

국내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의 분야에 적극 투자하며 신성장동력 발굴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AI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의 서비스찬승 교수와 펜실베니아대학교의 다니엘 리 교수를 영입했다.

서비스찬승 교수와 다니엘 리 교수는 각각 삼성 리서치(SR)에서 삼성전자의 AI 전략 수립과 선행 연구 자문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 차세대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로보틱스 관련 연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AI 역량을 키워오고 있다. 지난해 세트부문 선행 연구조직인 삼성 리서치(SR)를 신설한데 이어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 5개국에 글로벌 AI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삼성전자는 AI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국내 산학협력을 통해 한국 A I 총괄센터가 전세계 AI 연구의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AI 선행 연구개발 인력은 2020년까지 국내 약 600명, 해외 약 400명을 충원해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LG전자는 로봇을 신성장 분야로 점찍고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 사용자 감정을 인식하는 '감성인식 AI'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AI 스타트업 아크릴의 지분 10%를 10억원에 인수한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로보스타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거래금액은 약 800억원으로 내년 말까지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LG그룹은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에 벤처 투자 기업인 LG테크놀로지 벤처스를 설립했다. LG가 그룹 차원에

서 해외 벤처 투자 기업을 세운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LG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는 지난 7일과 9일(현지시간) 이를 예 걸쳐 미국 동부와 서부에서 '2018 SK 글로벌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와 첨단산업 분야의 최신 트렌드 파악 등을 위한 자리로 석·박사급 인재와 미국 내 글로벌기업에 근무하는 한인 과학자, 엔지니어, 사업개발 담당 등 리더급 인재 340여 명이 참석했다.

그룹 측은 포럼 과정에서 SK에 필요 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AI 분야 인력 확보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는 지난달 AI 세계 4대 강국을 목표로 2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2022년까지 5000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찬길 기자 cgr@metroseoul.co.kr

## 로봇분야 '선도'

## 핵심인재 확보

현대차 이차전지 소재 연내 확정  
車 배터리 내년부터 본격생산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개발 중인 이차전지의 내부 구성이 올해 4분기 확정될 전망이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격적인 생산은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전기차용 이차전지 셀의 소재 조합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차전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는 양극재다. 국내 업체들은 보통 니켈·코발트·망간(NCM)으로 구성된 양극재를 사용한다. 이 소재를 사용한 초기에는 세 소재의 비율이 1:1:1이었으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6:2:2 비율을 사용한다.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양극재는 니켈의 비율이 80%를 넘는다. 니켈은 코발트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배터리 에너지밀도를 높이기가 쉽다. 그러나 소재 안정성이 낮아 소재 비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이 양극재를 어떤 소재로 구성할지 확정하지 않았다. 파우치 형태의 중대형 이차전지로 제조한다는 것만 확정됐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이차전지 개발은 일반적인 이차전지 업체들의 개발 방식과 달라 업계에서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을 하며 공급업체가 정해지는 이차전지 업체와 달리 현대차그룹은 마치 소재를 자동차 부품처럼 구매해 개발을 진행한다"며 "이차전지는 소재간 궁합이 잘 맞아야하는데 아직 이 조합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소재업체들로부터 일반 샘플 제공량보다 많은 양의 소재를 구매해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개발을 진행 중이다.



과거 2010년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이 합작한 전기차 배터리팩 제조업체 HL그린파워의 현판식. 현대모비스 정석수 당시 부회장(왼쪽), LG화학 김반석 당시 부회장(오른쪽), 박상규 HL그린파워 대표이사(가운데)가 현판식에 참여했다.

/뉴스

이런 이유로 현대차그룹의 이차전지 양극재 후보군은 국내외 업체를 포함해 약 2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이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는 애코프로·포스코ESM·한국유미코아·엘엔에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애코프로는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발표한 중대형 NCM 비중 8:1:1 이차전지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까지 이 비중의 중대형 배터리를 양산하는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이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올해 4·4분기에는 소재 구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재만 정해진다면 공급 업체도 금방 확정돼 내년 중 이차전지 셀 생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양극재 소재 주문에서 실제 양산에 들어 가기까지는 3~4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의왕에서 연구 중인 이차전지는 개발 중인 차량을 위한 것"이라며 "양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찬길 기자

## 부산모터쇼 3일만에 '22만명'... 흥행 예고

오는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서 개최  
총 관람객 2016년 수준 65만명 예상

'2018 부산 모터쇼'를 찾은 관객수가 개막 3일째인 지난 10일까지 22만명으로 집계돼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11일 부산모터쇼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8일 개막한 이번 행사는 어제 하루 9만 9000여 명이 찾는 등 구름인파가 몰렸다.

'2018 부산 국제모터쇼'는 지난 7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11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9개국, 183개사, 3076부스 규모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19개 브랜드가 국내차 95대, 해외차 98대, 기타 출품차량 10대를 포함해 총 203대의 차량을 출품했다. 이 가운데 신차는 35대이며, 해외유수 디자인상을 받은 제품부터 전기차까지 다양하다. 행사 기간에는 유료 입장객을 추첨해 차량 10대(매일 1대씩)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한다.

올해 모터쇼에는 국내완성차 8개 브랜드인 현대차, 제네시스,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현대상용, 기아상용, 에디



'2018'부산모터쇼 관람객 수가 개막 3일째인 지난 10일까지 22만명으로 집계됐다.

/부산모터쇼

슨모터스와 해외완성차 11개 브랜드인 BMW·미니, 메르세데스-벤츠, 재규어, 랜드로버, 아우디, 도요타, 렉서스, 놋산, 인피니티, 만트릭 등이 참여했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들은 지난 2016년에 이어 2000m<sup>2</sup> 이상의 대형 부스에 월드프리미어, 아시아 프리미어, 코리아 프리미어, 미래형 콘셉트카를 대거 출품해 안방시장 수성에 나선다. 해외 완성차로는

BMW·미니, 메르세데스-벤츠, 재규어 랜드로버, 아우디에서 1000m<sup>2</sup> 이상의 규모를 꾸렸고, 메르세데스-벤츠의 월드프

리미어 차량을 비롯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이 있다.

부산모터쇼 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신기술을 활용한 VR(가상 현실) 씨어터 체험관을 운영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이용한 미래 자율주행 가상 체험 '5G 콕핏'으로 인기몰이를 했다.

하미영 부산모터쇼 사무국 차장은 "행사 종 관람객은 지난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인 65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

내부갈등설·자진사퇴설 등 반박  
경총 송영준 부회장 일주일만에 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송영준 상임부회장이 일주일만에 사무실인 경총회관으로 출근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내부 갈등설과 자진사퇴설을 반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총에 따르면 송 부회장은 재택근무 선언 일주일만인 이날 경총회관으

로 출근 하며 기자들에게 사퇴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송 부회장은 앞서 4월 6일 경총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노사 문제에서 경영계를 대변하는 조직의 수장으로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 송 부회장은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 출

신이다. 이 때문에 재계로부터 경영계가 아니라 노동부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취임 이후에는 조직내 불화설이 발생했다. 송 부회장의 리더십이 경총 사무국과 맞지 않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5월 21일 발생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 중 경총이 태도를 바꾼 사건은 송 부회장과 경총 사무국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박찬길 기자